

## 일 어

### 2008년 시행 행정고등고시(행정직)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다음 글을 우리말로 옮기시오.

(총 25점)

- 1) 제트기의 충격파의音におどろいて、一年四ヶ月になる息子が転び、遊んでいた空き缶の角で目の上を切った。少し深かったらしく血の出方がひどく、近所の病院につれていったが、帰ってくるや否や、もうばんそうこうを剥がしてしまい、部屋中をかけ回り、また同じ空き缶に手を出そうとする。傷つくことをちっとも恐れていないのである。まだ経験によって学ぶことのできない幼児を、愚かだと言ってしまうはそれまでだが、その恐れるものがないがむしゃらは、一種のさわやかさを感じさせる。

幼児のいたずらは、そのすべてが破壊であり、無意味な行為である。けれどもそういういたずらに手を焼きながらも、親たちはそれを同時に喜んでいるのだ。なぜなら、そのような無意味な破壊の中に、生命を見、幼児の人間へ向かっての成長を見ることができるからである。つかむ、なめる、たたきつける、そのような行為によって、幼児は世界をためし、知ってゆく。コップを壊すことも、ミルクをひっくり返すことも、彼にとっては自分をつくってゆく過程なのだ。

幼児のように破壊する勇氣は大人にはない。いわば絶えず自分で自分を変革してゆく、子供のひたむきな生命を見ていると、突然自分が恥ずかしくなることがある。

この世に生まれでたばかりのもの、人間の赤ん坊、鳥の雛、そして植物の芽などは、みな周囲の特別の配慮のもとで育ってゆく。人間の場合なら医師の職業的技術、両親の愛情、植物の場合なら日光や水、それらはすべて「優しさ」のいろいろな相なのだと、私には思える。私にとっては「優しさ」は、単に人間的感情であるだけではない。それは少々大げさに言えば宇宙に生命なるものを現出させたその根本原理なのである。とは言うものの、これほどとらえ難いものもない。優しさと残酷は常に隣り合っている。また、優しさは弱さよりも強さにふさわしい。(15점)

- 2) まず、「ビジネス戦略」および「国際企業の組織」について述べるが、さらに進んで「政府官僚」を槍玉に挙げる。官僚は「国境なき世界」において権力を失いつつあるが、どうも往生際が悪く、いろいろ厄介な問題を起こしている。そして最後に、明日の世界経済が向かいつつある方向を展望する。「経営戦略」とは、競合企業よりもはるかに優れた価値を、顧客のために生み出し、維持することである。したがってそれは、なによりもまず「創意工夫」と、その「商業化」を意味す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大企業で働く人のほとんどは、すでに創意工夫のやり方を忘れている。事業の売買やいずこも同じ月並み製品の改良程度ならお手のものだが、真に他社より優れた製品の開発は行なっていない。また新しいアイデアを支える新規事業の形成も怠っている。創意工夫といっても、高品位テレビのような大規模ハイテク開発プロジェクトばかりではなく、ほとんどの人が日常使用する製品も含まれる。たとえばコーヒー・ポットにしても、本当においしいコーヒーのいれられるポットを、どうやってつくるのか。あるいは、肌を健康にする「バブル・バス」の開発はどうか。机に座ってコンピュータ画面をながめて、それで仕事をしていると勘違いしている製品開発者のうち、果たして何人にそれができるだろうか。あまり大勢いるとは思われない。競合関係に気をとられ、市場シェアや確率統計の数字で頭がいっぱいの担当者には、真剣に顧客のことを考える余裕がない。(10점)

제 2 문. 다음 글을 일본어로 옮기시오.

(총 25점)

- 1) 자본주의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예컨대 영미식이라 불리는 ‘자유시장경제’체제와 흔히 유럽식이라 불리는 ‘조정시장경제’체제가 그것이다. 영미식은 시장과 자본의 자유를 최우선시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유럽식은 국가나 사회에 의한 시장의 조정을 장려함으로써 사회공동체의 유지를 도모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간에 소위 ‘자본주의 표준경쟁’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이 만들고 익숙해져 있는 기술, 규율, 제도, 체제 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그리하여 그것이 ‘세계표준’으로 자리 잡을 경우, 그 창시자는 세계 어디에서나 편안한 환경과 유리한 지위를 누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주요 선진국 간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표준경쟁이 벌어진다. (10점)

- 2) 일본측에서 보면, 미일 교섭은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를 물리치지 못하는 일본 정부’라고 하는 구도로 파악되기 쉽다. 분명 양자의 자세 차이가 두드러진다. 하지만, 풍파를 일으키지 않는 일본정부의 자세는 좀 더 평가를 받아도 좋다. 경제적 상호의존이라고 하는 접착제가 있어도, 여론의 영향력이 큰 현대정치에서는 ‘단추 잘못 채우기’가 생각지 않는 방향으로 대립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정부의 저자세는 오히려 「혐미」 감정을 강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측에서는 무역불균형을 둘러싸고, “일본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하는 조바심을 내고 있다. 더욱이 냉전 종결은 미일결속을 느슨하게 하는 방향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만일, 일본 여론이 냉정함을 잃고 정부에 강경책을 강요하게 되면, 쌍방에서 증오가 부풀어 오르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경제적 상호의존이라고 하는 제어장치가 듣지 않고, 미일 관계가 또다시 파멸에 빠질 우려조차 전무하다고는 할 수 없다. (15점)

## 행정안전부 시험출제과장